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87



Contents

※ 2025.07.10.(목) 기준(대상 기간 : 2025.07.03.~2025.07.09.)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수소 분야 1

- 국회, 수소환원제철과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 개최 (2025.07.03) 1
- 코트라, 남아공과 그린수소 산업 파트너십 확대 (2025.07.06) 1
- 500억 벤처펀드로 원전·수소산업 육성 본격화 (2025.07.03) 2
- 포항시 이차전지·수소산업 육성 성과 강조 (2025.07.03) 2
- 양평군, 무공해차 보급사업 추진 (2025.07.03) 2
- 김мина 창원시의원, 수소 카르텔 보은 인사 지적 (2025.07.03) 3
- 부안군, 민선 8기 3주년 수소산업 퍼스트무버 성과 (2025.07.03) 3
- 전북도, 청정에너지 수도 도약 위한 RE100 3대 전략 제시 (2025.07.04) 3
- 강원도, 현대차와 수소차 시승체험 행사 개최 (2025.07.04) 4
- 안산시 대부도 123번 노선 수소버스 전환 (2025.07.05) 4
- 울진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국정과제 반영 추진 (2025.07.05) · 4
- 광주시,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 3300만원으로 상향 (2025.07.07) 5
- 남아공 정부, 수소도시 완주 벤치마킹 방문 (2025.07.08) 5

■ UAM 분야 6

- 제주,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로 UAM 상용화 비전 제시 (2025.07.08) 6

■ ✎ 우주 분야 6

- 공군, 국제학술회의 개최로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 전략 논의 (2025.07.03) 6
- 이재명 대통령, 우주항공 기관 위치 갈등에 신중한 검토 약속 (2025.07.04) 7
- 대전시, K-스페이스 서밋 개최로 우주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 주도 (2025.07.03) 7
- 사천시-경상국립대, 우주항공기술경영학과 개소로 인재 양성 가속화 (2025.07.03) 8
- 박동식 사천시장,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국정과제 반영 촉구 (2025.07.04) 8
- 우주항공 클러스터 갈등 해법으로 'R&D-시험·인증' 기능 분리 제안 (2025.07.03) 9
- 제주 하원테크노캠퍼스, 투자심사 통과로 민간 우주산업 거점 조성 본격화 (2025.07.04) 9
- 과총, 제주를 차세대 우주 교육·훈련 허브로 육성 제안 (2025.07.04) 10
- 경남도, 우주항공·방산 육성 등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 건의 (2025.07.04) 10
- 박동식 사천시장, 민선 8기 3주년 맞아 우주항공복합도시 완성 다짐 (2025.07.07) 11
- 광진구-건국대, 스타트업 기술이전 위한 산학관 협력 체결 (2025.07.07) 11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2

■ ✎ 수소 분야 12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암모니아 분해 성능 3배 향상 촉매기술 개발 (2025.07.03) 12
- 석유관리원, 전국 수소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2025.07.03) 12
- 한국수소연합, 수소생산기지 상생 협의회 발족 (2025.07.08) 13
- 한수원, 체코와 원자력 청정수소 시장 공략 MOU (2025.07.08) 13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청년 주도 수소드림가로 조성 (2025.07.03) 13

■ ✎ UAM 분야 14

- ETRI, UAM의 끊임 없는 비행을 위한 6G 통신 기술 시연 성공 (2025.07.08)14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5

■ ✎ 수소 분야 15

- 현대차 신형 수소차 '디 올 뉴 넥쏘' 시승기 (2025.07.03)15
- 하이리움산업, 액화수소 활용 감시정찰용 드론 HylumX-H 출품 (2025.07.04)16
- JNTG, 두산퓨얼셀과 9년 협력으로 급격한 매출 성장 (2025.07.07)16
- 범한퓨얼셀, 경주충효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24억 계약 (2025.07.07)16
- 헤즈-BK에너지, 그린수소 온사이트 생산 MOU (2025.07.08)17
- 호주 연구진, 태양열 이용 그린 수소 생산 기술 개발 (2025.07.07)17

■ ✎ UAM 분야 18

- 현대트랜시스, 경량화 UAM 시트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도 (2025.07.07)18

■ ✎ 우주 분야 19

- 우주 제조(ISM) 및 자원 채굴(ISRU), 6조원 규모의 우주 경제 선도 (2025.07.07)19
- 누리호 개발자, '우주 택배' 위한 민간 궤도 수송선 개발 도전 (2025.07.08)19
- 대전 KAIST 우주인재양성센터, 93억 증액으로 사업 확장 가속화 (2025.07.08)20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국회, 수소환원제철과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 개최 (2025.07.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성무 국회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주관, 포스코홀딩스 후원으로 '수소환원제철과 탄소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철강·데이터 등 고에너지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겪는 전력 수급 불안과 비용 상승 문제 해결 방안 논의 - 포스코홀딩스 손병수 상무는 수소환원제철이 고온·대용량 전기가 필수적인 기술로 SMR 등 신에너지원과 산업단지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채효근 전무는 RE100 실현을 위한 전력 선택권 확보와 안정적 전력 공급의 시급성 제기 - 산업부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은 민간 중심 SMR 실증단지 조성 검토와 산업단지 중심 사업화 구체화 계획을 밝혔으며 박기철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이사장은 원자력 기반 수소에 대한 산업계 수요는 충분하지만 현행 제도상 기업 선택 불가능한 구조 개선 촉구
	<p>□ 코트라, 남아공과 그린수소 산업 파트너십 확대 (2025.07.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와 코트라가 4일 서울에서 '2024-25년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일환으로 남아공 대상 'KSP 그린수소 산업 발전방안 중간보고회'와 '수소 프로젝트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하여 수소 분야 정책 자문과 기술 교류를 아우르는 종합형 협력 프로그램 진행 - 남아공 전기에너지부, 과학기술혁신부, 산업개발공사 등 5개 정부기관과 현대자동차, 삼성물산 등 국내 수소기업 5개사가 참여하여 기술력과 사업 모델 소개 및 실질적 협력 기회 논의하며 7~9일 현대차 전주공장, 안산 수소도시, 인천 수소생산기지 등 산업 현장 연수 진행 - 남아공은 2022년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후 그린수소동맹 창설로 정책 개발과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 KSP 사업을 통해 남아공산 그린수소 수입, 이리둠·백금 등 전략 광물 개발 협력, 연료전지·모빌리티 현지 생산거점 구축 등 다양한 후속사업 발굴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500억 벤처펀드로 원전·수소산업 육성 본격화 (2025.07.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성장펀드 운영사로 최종 선정되어 인라이트벤처스와 공동으로 500억원 규모 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를 조성하며 원자력과 수소산업 본격 육성과 민관 협력형 투자 모델의 새로운 이정표 수립 - 국비와 공공기관 350억원, 경북도와 전남도 각 50억원, 포항시·경주시·울진군 각 10억원, 지역 금융기관과 민간 기업 20억원 등 복합 출자 구조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 자본이 공동 참여한 국내 대표적 민관 협력형 펀드 조성 -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SMR 국가산단 등 경북의 전략적 에너지 프로젝트와 직결되어 원전 연계 수소 생산, 차세대 원자로, SMR 등 미래형 에너지 산업 초기 투자 집중으로 기술 기반 기업 투자 유입과 일자리 창출 기여 전망
	<p>□ 포항시 이차전지·수소산업 육성 성과 강조 (2025.07.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강덕 포항시장이 취임 11주년 기자회견에서 2014년 민선 6기부터 민선 8기까지 3선 동안 이차전지 육성, 혁신적 바이오메디컬 시티 구현, 수소산업 육성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주도권 확보, 차별화된 국제 해양관광산업도시 변모 등을 주요 성과로 발표 - 2017년 포항지진과 2022년 태풍 힌남노라는 큰 위기를 50만 포항시민들과 2000여 공직자들과 함께 극복한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꼽으며 회색도시에서 녹색도시로의 그린웨이 프로젝트와 사통팔달 교통망 강화 등 도시 인프라 개선 성과 강조 -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 시민이 안전한 포항 구현, 시민의 삶과 감성이 풍요로운 힐링문화도시 완성, 포항형 복지실현 등을 통해 남은 임기 1년 동안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적 봉사 의지 표명
	<p>□ 양평군, 무공해차 보급사업 추진 (2025.07.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평군이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상·하반기로 물량을 나눠 예산 소진 시까지 상반기 738대(전기 승용 535대, 전기 화물 198대, 수소전기 5대)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들의 친환경 차량 구매 지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양평군 거주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자, 법인 대상으로 등·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간단한 서류 준비 후 대리점 방문하여 전기승용차 최대 1,01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2,250만원, 수소전기차 최대 3,250만원 차등 지원 - 전진선 양평군수는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양평군청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차종별 보조금과 관련 서류 등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김미나 창원시의원, 수소 카르텔 보은 인사 지적 (2025.07.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제1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소특위 위원장으로서 창원 산업진흥원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하이창원과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전반의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사업 목적과 동떨어진 계획과 입지 부적정성에 심각한 우려 제기 - 창원시가 홍보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의 기술 국산화와 청정 수소 생산이라는 전략 사업 목표와 달리 실제로는 해외 반제품을 들여와 조립하듯 설치한 수준에 그쳐 기술 국산화는 뒷전이 되고 수소 생산도 유통이라는 단순 기능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 - 하이창원에 전문성 명목으로 허성무 전 시장 선거캠프 출신을 임명하고 조직 직제에도 없는 자리에 연봉 7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보은성 인사이며 해외 사례와 달리 마산·창원·진해 생활권 중심부에 대규모 고위험 설비를 설치한 것은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지적
	<p>□ 부안군, 민선 8기 3주년 수소산업 퍼스트무버 성과 (2025.07.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안군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전국 최초 상업용 수전해생산기지 건설 착공과 농어촌 군지역 부안형 수소도시 건설로 수소산업 선도도시로 우뚝 서며 적극행정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여 사상 첫 예산 8000억원 시대 개막 및 6년 연속 국가예산 5000억원 달성 - 인구대비 수소차 보급률 전국 1위, 전국 최초 군단위 수소충전소 2개소 운영, 수소청소차 운영 등 수소 교통인프라 구축과 함께 부안 해플웰니스타운 공모 선정, 국내 유일 지방정원 2개소 보유,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기공식 개최 등 다양한 성과 창출 - 2.46GW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풍력발전 기업 본사 부안 유치,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선정으로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 확장과 함께 부안형 푸드플랜 안정적 정착으로 로컬푸드직매장 누적매출액 222억원 달성 및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률 제로화 실현
	<p>□ 전북도, 청정에너지 수도 도약 위한 RE100 3대 전략 제시 (2025.07.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두 번째 규모인 연간 9833GWh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기록하며 새만금 태양광 3GW와 군산·서남권 해상풍력 4GW 규모 에너지 생산을 통해 7GW급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완료시 전력 자립 가능 전망 -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고창~부안 해역에 14조원 이상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로 올해 안에 1GW 확산단지 추가 지정과 군산 어청도 인근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을 추진하며 새만금 내측 수상태양광은 2.1GW로 국내 최대 규모 조성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RE100 특구 지정), 국가(계통 유연성 확보), 도민(수익 공유형 모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재생에너지 누리길' 정책 수립과 함께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탄소중립연료 R&D,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사업 등 수소산업 확대에 RE100 선도 지역 자리매김 추진
	<p>□ 강원도, 현대차와 수소차 시승체험 행사 개최 (2025.07.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특별자치도가 7월 6일 춘천시 삼천동 중도주차장 일원에서 현대자동차와 공동 주최·주관으로 도민의 수소차 인식 제고와 수소산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 확산을 위한 '디 올 뉴 넥쏘' 수소전기차 시승체험 행사 개최 - 총 56팀 대상 약 30km 구간 직접 주행 시승 프로그램과 최대 100팀까지 참여 가능한 탑승 체험 행사를 운영하여 수소차의 다양한 기능과 친환경 주행 성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수소차 장점 체험을 통한 인식 개선 도모 -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시승 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수소차 장점을 직접 경험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 가능한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수소차 보급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 밝힘
	<p>□ 안산시 대부도 123번 노선 수소버스 전환 (2025.07.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시가 4일 대부해양본부에서 이민근 안산시장과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도 탄도오이도역안산시청을 연결하는 123번 노선 버스 16대 중 8대를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기념식 개최 - 전국 최초 수소시범도시 완공에 이어 운송사업자 태화상운과 긴밀한 협의로 수소버스 도입을 이끌었으며 나머지 8대도 2029년까지 단계적 교체 예정으로 대부도 노선을 시작으로 시 전역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 - 이민근 안산시장은 천혜의 청정 자연을 품은 대부도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수소버스가 운행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산업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힘써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p>□ 울진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국정과제 반영 추진 (2025.07.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진군이 충남 서산시부터 울진군까지 한반도 중부 내륙을 관통하는 총연장 330km, 총사업비 7조원 규모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포함을 위해 13개 시·군과 공동 대응 및 국민 인증 릴레이 진행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2030년까지 총 4천억원 투입하여 죽변면 후정리 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대 158만㎡ 규모로 조성되며 원전 10기에서 생산된 무탄소 전력을 이용해 대규모 청정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이 가능한 한국형 청정수소 산업 전초기지로 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수소 관련 대기업 11곳이 입주 확정 또는 논의 중으로 민간투자 유치와 첨단 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되며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모델로 부상
	<p>□ 광주시,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 3300만원으로 상향 (2025.07.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현대 수소자동차 신형 모델 '디 올 뉴 넥쏘' 출시일에 맞춰 구매 보조금을 7년간 지급한 금액 대비 50만원 인상한 3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청 편의성 개선을 위해 거주 요건도 90일에서 30일로 대폭 완화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시비 50만원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총 3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시범 적용 후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 신청은 12월5일까지 광주지역 현대자동차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가능 - 광주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15억원 투입해 수소승용차 1333대, 수소버스 43대, 수소청소차 4대 보급으로 초미세먼지 15.7톤, 온실가스 2795톤 감축하여 30년 생 소나무 32만500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하는 환경 개선 효과 달성
	<p>□ 남아공 정부, 수소도시 완주 벤치마킹 방문 (2025.07.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프리카공화국 전기에너지부 및 과학기술혁신부 등 정부 관계자 11명이 7일 완주군의 수소 산업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수소 생산·공급기지, 수소충전소 등 수소전주기 클러스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수소도시 완주 견학 - 방문단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수소 상용차 생산과정과 기술 현황을 청취하고 정부의 수소 모빌리티 확산 전략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완주군 수소전주기 클러스터에서 수소 생산 과정과 공급 구축망을 직접 견학하고 수소도시 조성 전략 등 질의응답 진행 - 완주군은 수소 특화 국가 산업단지 조성 등 수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다양한 기반을 구축 중이며 유희태 완주군수는 국내외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국제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 갈 계획 표명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p>☐ 제주,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로 UAM 상용화 비전 제시 (2025.07.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IEVE 2025)'가 제주 신화월드에서 성대하게 개최됨. 이번 행사는 50개국 15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기술과 정책을 조망하는 글로벌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함. 특히 '탄소 없는 섬 제주 2035' 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 산업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한눈에 확인할 기회로 주목받음 - 엑스포 기간 중에는 UAM·드론 포럼, 국제 친환경 전기선박 엑스포 등 30여 개의 전문 컨퍼런스가 동시에 진행되어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함. 특히 전 세계 10개국 이상의 대사와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었으며,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 포럼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이 됨 - 행사 3일 차에는 '전국 최초 제주 UAM 상용화 추진전략포럼'이 열려 제주도의 구체적인 UAM 인프라 실증 계획이 공개될 예정임. 이는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산업 실증과 시민 참여를 연결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제주도가 대한민국 UAM 상용화의 선도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문화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공군, 국제학술회의 개최로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 전략 논의 (2025.07.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공군이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항공우주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27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함. 이번 회의에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방위사업청 등 항공우주 분야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하여 국가안보의 핵심 전략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는 ‘안보 환경 변화와 항공우주력의 발전 전략’, ‘국방 첨단과학 기술 발전과 연계한 항공우주산업의 역할과 미래’ 라는 두 가지 핵심 주제로 진행됨. 이를 통해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항공우주력의 역할과 국방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짐 -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항공우주력이 국가 주권 수호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공중 및 우주에서의 우세 달성을 위한 공군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 공군은 최근 AI 신기술 융합센터 설치, 우주작전전대 창설 등 항공우주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하며 미래 국방 역량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p>□ 이재명 대통령, 우주항공 기관 위치 갈등에 신중한 검토 약속 (2025.07.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사천 우주항공청과 대전 연구기관 간의 갈등 조짐을 보이는 우주항공 관련 시설 입지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힘. 대통령은 특정 지역으로 기관을 모두 모으는 문제에 대해 “참 어렵다”고 언급하며, 어느 방안이 합당한지 깊이 고민하여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임 -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 갈등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늘 마주하는 일이라고 설명함. 그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잠시 갈등을 겪더라도 그 기준과 내용이 합당하다면 결국 국민들이 수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내며,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결정을 시사함 - 또한, 수도권 인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함. 그는 대전·충청권 역시 공공기관 이전의 혜택을 받은 만큼, 더 어려운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침.
지자체	<p>□ 대전시, K-스페이스 서밋 개최로 우주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 주도 (2025.07.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가 지역의 첨단기술 기반 우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창업 생태계를 전국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2025 K-스페이스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함. 이번 행사에는 우주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자, 산·학·연 및 정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하여 우주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장을 마련하고 대전의 역할을 강화함 - 이번 서밋의 핵심은 스타트업, 투자사, 연구기관 등 80개 기관이 참여하는 ‘스페이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시켜 자생적인 협업 기반을 구축한 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입. 우주항공청, KAIST 등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우주산업 정책, 시장 동향, 스타트업 성장 전략 등 심도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우주 분야 파트너사인 컨텍, 아이스페이스 간 오픈이노베이션 협약이 체결되어 향후 유망 스타트업 공동 발굴 및 동반 성장이 기대됨. 또한, 참가자 간 1대 1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을 통해 구체적인 파트너십 형성 및 깊이 있는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는 성과를 창출함.
	<p>□ 사천시-경상국립대, 우주항공기술경영학과 개소로 인재 양성 가속화 (2025.07.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사천시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경상국립대학교와 협력하여 사천 GNU 사이언스파크 내에 '우주항공기술경영학과'를 공식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함. 이는 경상국립대의 '글로벌 대학 30' 사업 선정과 사천시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결합된 성과로, 지역의 우주항공 교육 및 연구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림 - 신설된 학과는 기술과 경영을 융합한 실무형 석사 과정으로, 재직자와 지역 인재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주중 야간 및 주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임. 특히, 사이언스파크 내에 입주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여러 기관과의 긴밀한 산학연 연계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함 - 사천시는 이번 개소식을 계기로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기존 6개 산업체에 더해 대동기어, (주)아스트 등 13개 신규 기업과 추가 협약을 체결하며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함. 이는 사천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p>□ 박동식 사천시장,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국정과제 반영 촉구 (2025.07.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동식 사천시장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중요한 시기를 맞았으며, 관련 필수 과제들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실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그는 우주항공청 신청사의 조기 완공, 특별법 제정, 광역교통망 건설 등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함 - 박 시장은 특히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함. 그는 이것이 경남도민의 염원이자 산업계의 필수 요건이며, 강력한 법적 기반 없이는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위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함. 또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국가 필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더불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과학영재 학교 설립, 정주 여건 개선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임. 이를 통해 사천시를 대한민국 우주 강국 도약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함.
	<p>□ 우주항공 클러스터 갈등 해법으로 'R&D-시험·인증' 기능 분리 제안 (2025.07.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과 대전 간 우주항공 클러스터 갈등을 해소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항우연·천문연의 기능을 분리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전정환 경상국립대 교수는 핵심 연구개발(R&D) 기능은 기존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된 대전에 유지하되,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시험·인증 기능만 분리하여 기업이 밀집한 진주·사천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 제안은 사천·진주에 위치한 KAI 등 다수 항공우주 기업들이 시험·인증을 위해 장거리 이동과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함임. 산업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검증·인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취지임 - 또한, 진주에 본원을 둔 국가 공인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됨. 항우연·천문연의 시험·인증 분원이 KTL과 협력 모델을 구축할 경우, 우주항공청의 기능 강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부합하며 산업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임.
	<p>□ 제주 하원테크노캠퍼스, 투자심사 통과로 민간 우주산업 거점 조성 본격화 (2025.07.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형 민간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추진 중인 서귀포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짐. 이번 심사 통과로 사업의 타당성을 공식 인정받아, 약 1133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탄력을 받게 되어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짐 - 이 사업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첨단 제조기업과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제주도는 기획발전특구 지정으로 확보한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계획임 - 이미 캠퍼스 부지에는 한화우주센터가 입주하여 올해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위성 생산 설비를 갖추고 최대 300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번 투자심사 통과를 발판 삼아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대한민국 민간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방침임.</p>
	<p>□ 과총, 제주를 차세대 우주 교육·훈련 허브로 육성 제안 (2025.07.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제주를 우주 교육 및 훈련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함. 이태식 과총 회장은 오영훈 제주지사와의 면담에서 사천(위성), 대전(연구), 고흥(발사체)에 이어 제4의 우주 클러스터로서 제주의 역할을 강조함 - 이번 제안은 '2025 국제우주대학(ISU) 우주연구 프로그램' 참석차 방한한 존 웬스빈 ISU 총장과 함께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및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시찰한 후 이루어진 것임. 방문단은 제주의 기존 인프라와 우주 체험시설을 연계한 교육 클러스터 구축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협력을 약속함 - 이태식 회장은 제주가 가진 지리적 이점, 항공우주박물관 등 관련 인프라, 그리고 화산지형이라는 독특한 자연환경이 우주 분야 인재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최적화된 조건을 제공한다고 설명함. 이는 제주가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글로벌 우주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함.
	<p>□ 경남도, 우주항공·방산 육성 등 핵심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 건의 (2025.07.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현안들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섬.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서를 전달하고, 경남의 주요 사업들이 국가 발전 전략의 일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함 - 경남도가 건의한 핵심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과 연계된 사항들로, K-우주항공 산업 메카 육성, 글로벌 4강 수준의 방산 집적지 조성, 제조 특화 AI 플랫폼 개발, 남해안 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음 - 박명균 부지사는 “경남의 현안이 곧 대한민국의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제안된 사업들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도 일치함을 역설함. 경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국정과제 대책반'을 운영하며, 마지막까지 핵심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박동식 사천시장, 민선 8기 3주년 맞아 우주항공복합도시 완성 다짐 (2025.07.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동식 사천시장이 민선 8기 3주년 기념행사에서 우주항공청 개청을 발판 삼아 산업과 정주 여건,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 그는 남은 임기 1년이 민선 8기의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시민이 행복한 사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함 - 박 시장은 지난 3년간의 대표 성과로 우주항공청 사천 유치, 창원대 사천 우주항공캠퍼스 개교,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을 꼽으며, 우주항공청 유치가 대한민국 산업 지도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함. 이를 기반으로 신청사 조기 건립, 광역교통망 확충 등 후속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함 -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으로 '현장 중심, 사람 중심'을 제시하며 시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힘. 그는 우주항공청 유치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사천을 완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함.
	<p>□ 광진구-건국대, 스타트업 기술이전 위한 산학관 협력 체결 (2025.07.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광진구가 지역 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건국대학교 항공우주설계인증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산학관 협력에 나섬. 이번 협약은 광진 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들이 대학의 첨단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함 - 건국대 항공우주설계인증연구원은 인공지능, 로봇, 소프트웨어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입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함. 협약에 따라 기술 실증사업 연계, 기술 고도화 자문,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 공유 등 다방면에 걸쳐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임 -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설명회와 상담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이전된 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함. 또한, 대학의 박사급 연구 인력이 스타트업의 특허 출원과 사업화 과정을 직접 돕는 등, 기술과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임.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암모니아 분해 성능 3배 향상 촉매기술 개발 (2025.07.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 구기영 박사 연구팀이 기존 방식보다 3배 높은 분해 성능을 갖춘 신개념 루테튬 촉매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수소 함량이 높고 장거리 운송과 대용량 저장이 가능한 수소 운반체인 암모니아로부터 수소 생산 효율성 대폭 향상 - 폴리올 공정 기반 촉매 합성법으로 안정화제 없이 탄소사슬 길이가 긴 부틸렌글리콜을 활용해 2.5나노미터 크기 루테튬 입자를 균일하게 분산시키고 수소 생성 반응이 일어나는 'B5 사이트' 형성에 성공하여 활성화 에너지 20% 감소 및 수소 생성률 1.7배 증가 달성 - 루테튬 촉매로 500~600도의 다른 촉매보다 100도 이상 낮은 온도에서도 암모니아를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 기술로 펄릿 촉매 양산과 다양한 암모니아 크래킹 시스템 적용을 통해 암모니아 분해 촉매 기술 국산화와 실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가기관	<p>□ 석유관리원, 전국 수소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2025.07.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석유관리원이 3일부터 2일간 부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전국 지자체 수소담당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수소담당공무원 교육'을 개최하여 수소경제 현장 실무와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첫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수소경제 정책 동향, 수소유통 현황과 수급 비상대응 사례, 국내외 수소산업 현황과 전망, 수소충전소 설비 이론, 수소전기차와 수소모빌리티 개발 동향 등 실무 중심 강의와 사례 공유를 통해 수소 공급망 관리, 비상상황 대응, 현장 민원 대응 능력 등 실질적 역량 강화 -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교육을 통해 수소산업 이해와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기대하며 석유관리원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 산업부와 함께 수소 유통과 가격안정화, 수급 비상대응체계 마련 등 국가 수소 공급망 전반 관리 지원 기능 지속 수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한국수소연합, 수소생산기지 상생 협의회 발족 (2025.07.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소연합이 서울 렉키컨퍼런스에서 수소생산기지 운영 효율성 및 안정성 향상 방안 논의를 위한 '수소생산기지 상생 협의회' 발족하여 외부 전문가 3인, 수소생산기지 운영기관 7개 지역, 국내 수소개질기 업체 3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출범 - 박진남 경일대 교수가 초대 의장을 맡아 2019년부터 운영해온 소규모 수소생산기지의 설비 무상 A/S 기간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기관과 설비 공급업체 간 협력체계 구축하여 안정적 운영구조 마련에 중점 - 공동 유지보수, 부품 공동구매, 데이터 기반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 등 의제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 진행하여 1차 협의회 이후 지속적인 조정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상생 협력방안 도출로 수소 모빌리티 확산 지원 및 수소경제 활성화 이끌 계획 <p>□ 한수원, 체코와 원자력 청정수소 시장 공략 MOU (2025.07.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력원자력이 7일 체코 국영 원자력 연구기관 유제이브이-레즈 본사에서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 생산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유럽 원자력 청정수소 시장 공략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 체계 구축 - 체코 내 원자력 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법·제도, 안전 규제, 경제성까지 전방위적으로 검토하며 본격적인 사업화 추진과 함께 수소 생산 최적 입지 선정과 수요처 발굴도 공동 진행하여 EU의 원자력 활용 수소 생산 탄소 감축 수단 인정 방향에 대응 - 한수원은 국내에서 세계 최대 규모 10MW급 원자력 청정수소 실증설비 구축 중이며 지난해 체코 수소협회와 협약 후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체코 등 유럽 내륙국의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 확보 수요에 맞춰 본격적인 시장 진출로 탈탄소 시대 경쟁력 제고
지방기관	<p>□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청년 주도 수소드림가로 조성 (2025.07.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가 산업부 주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8억 6000만원 중 국비 20억원을 확보하며 지역 청년 중심의 자연친화형 가로 조성을 통한 산업단지 환경 개선 추진 - '수소드림가로' 명칭으로 그린 쉼터 확보, 수소산업 특화 이미지 조성, 자연친화적 가로 경관 개선을 중심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5월부터 입주기업·협의회와 함께 공모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력을 높이고 청년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친환경적 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업단지 기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중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약 체결 후 설계에 착수하여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본격 시공에 나설 예정이며 조성된 공간은 청년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함께 수소산업 특화 도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전망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ETRI, UAM의 끊김 없는 비행을 위한 6G 통신 기술 시연 성공 (2025.07.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상망과 위성망을 통합하여 도심항공교통(UAM)이 비행 중에도 끊김 없는 통신을 유지하는 '6G 초공간 통신'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실시간 시연하는 데 성공함. 이번 성공은 UAM을 포함한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6G 국제표준화 경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음. - 시연에서는 통합 단말과 6G 코어에 적용된 '듀얼 스티어링'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이 기술은 통신 환경에 따라 지상망과 위성망 신호를 자동으로 최적의 상태로 선택 및 전환하여, UAM이 도심 상공을 비행하는 동안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통신 연결을 보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또한 CG와 채널 에뮬레이터를 활용해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기술의 이해도를 높임. - 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의 '6G 핵심 원천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통신 3사와 주요 기업 및 대학이 참여한 대규모 협력의 성과임. ETRI는 해당 기술과 관련하여 다수의 SCI급 논문 발표, 국내외 특허 48건 출원, 3GPP 국제표준 채택 43건 등의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달성하며 6G 시대의 기술 리더십을 확고히 입증함.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현대차 신형 수소차 '디 올 뉴 넥쏘' 시승기 (2025.07.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가 2018년 1세대 넥쏘 출시 이후 7년 만에 선보인 완전변경 모델 '디 올 뉴 넥쏘'는 110kW 수소연료전지와 150kW 전기모터, 80kW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하여 강력한 전동화 성능을 구현하며 글로벌 누적 판매 4만대로 시장점유율 1위 기세 유지 - 1회 충전시 최대 720km 주행 가능하며 수소 탱크 용량을 6.33kg에서 6.69kg로 확대하고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7초 도달하는 강력한 동력 성능과 초급속 충전시 5분 만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 가능한 편의성 제공 - 전국 219개 수소충전소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루트플래너 기능과 최대 3.68kW 전력을 공급하는 실내외 V2L 기능으로 청정 발전기 활용 가능하며 익스클루시브 7644만원부터 프레스티지 8345만원까지 판매되어 정부 보조금 적용시 3894만원부터 구매 가능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하이리움산업, 액화수소 활용 감시정찰용 드론 HyliumX-H 출품 (2025.07.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저온 액화수소 전문기업 하이리움산업이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 대전에 액화수소 및 기체수소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감시정찰용 드론 'HyliumX-H'를 출품하여 배터리드론 대비 8배 이상 비행시간을 제공하는 혁신적 기술력 선보임 - 액화수소 저장탱크와 연료전지로 구성된 파워팩으로 전력을 생산하며 -253℃에서 생산·운용되는 액화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초경량 고단열 탱크를 자체 제작하여 드론 기체 장착이 가능할 만큼 가볍고 뛰어난 단열 성능 구현 - 2014년 설립 이후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생산, 저장, 운송 기술을 독자 개발한 하이리움산업은 해병대에 1차년도 공병지원용 수소드론 1기 납품 완료했으며 소형탱크부터 선박용 초대형탱크까지 폭넓게 제작·판매하고 올해 연말 코스닥 상장 예정
	<p>□ JNTG, 두산퓨얼셀과 9년 협력으로 급격한 매출 성장 (2025.07.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전문기업 JNTG가 2011년 법인 설립 후 두산퓨얼셀과 2016년부터 시작한 9년간 전략적 협력으로 최근 3년간 급격한 매출 성장 기록하며 2020년 300만원에서 연평균 1000% 이상 성장률로 2023년 100억원 규모 도달하는 폭발적 성장 달성 - 연료전지 핵심 부품 GDL(Gas Diffusion Layer), 에너지저장시스템용 GFE(Graphite Felt Electrode), 발전용 연료전지·수전해시스템용 CS(Carbon Substrates) 등 탄소소재 분야 국내 최초 상용화로 4년간 연구개발 끝에 2020년 상용화 성공 후 2022년부터 양산 계약 체결 - 2021년 제58회 무역의날 300만불 탑 수상 이어 2025년 6천만불 수출 목표로 북미,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시장 확대 중이며 정부 수소생태계 육성 정책과 맞물려 국내 연료전지 산업 자립도와 국산화율 향상에 실질적 기여로 수소산업 본격 상용화 단계 진입 입증
	<p>□ 범한퓨얼셀, 경주충효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24억 계약 (2025.07.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한퓨얼셀이 수소에너지네트워크와 24억 규모 경주 충효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 1식 증설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작년 연결 매출액의 6.63%에 해당하는 대규모 계약 성사 -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소충전소 핵심 설비인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를 통해 경주 지역 수소 모빌리티 확산 기반 마련과 함께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에 중요한 역할 수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계약으로 범한퓨얼셀은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확대와 함께 수소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p>□ 헤즈-BK에너지, 그린수소 온사이트 생산 MOU (2025.07.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생산 원천기술 보유 헤즈와 수상태양광 전문 BK에너지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재생에너지 기반 온사이트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 공동개발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수소 융합 모델 구현 추진 - BK에너지의 수상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생성된 전력을 활용해 헤즈의 PEM 방식 고효율 수전해 기술로 현장에서 직접 수소를 생산하여 잉여전력 낭비를 줄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순도 수소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기술 협력 체계 구축 - BK에너지가 보유한 글로벌 조달 및 유통 인프라로 헤즈의 차량 및 산업용 수소발생기 브랜드 HY.O 시리즈를 북미 시장에 공급하는 공동 수출 전략 추진과 함께 도심형 수소스테이션, 산업단지 내 분산형 수소 생산설비, 수출형 모듈형 수소발생 시스템으로 사업 확장 계획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해외	<p>□ 호주 연구진, 태양열 이용 그린 수소 생산 기술 개발 (2025.07.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연방과학원 연구진이 일반적인 태양열 집광 시스템과 반대로 위가 아닌 아래쪽으로 태양 에너지를 모으는 빔다운 방식 태양열 수소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존 15% 수준의 태양 열화학 반응 기술보다 훨씬 높은 20% 에너지 전환 효율 달성 - 거울을 이용해 한 번 더 태양광을 반사시켜 아래쪽 반응 용기에 열을 집중시키고 촉매 역할을 하는 산화세륨(CeO2)을 고온 가열하여 물 분자에서 산소를 빼앗아 순수 수소만 남기는 열화학 반응으로 반응 후에도 산화세륨이 남아 계속 사용 가능 - 호주처럼 뜨거운 사막이 많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유망한 그린 수소 생산 기술로 주목받으며 수소차, 트럭 같은 운송 수단뿐 아니라 수소연료전지 발전, 수소환원제철처럼 친환경 산업의 미래 에너지원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민간기업</p>	<p>☐ 현대트랜시스, 경량화 UAM 시트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도 (2025.07.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트랜시스가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할 시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력의 집약체인 도심항공교통(UAM) 캐빈 콘셉트를 성공적으로 개발함. 이 콘셉트는 기존 20~40kg에 달하던 시트 무게를 알루미늄 프레임과 메시 소재 등을 활용해 8kg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인 경량화 디자인이 특징으로, 세계적 권위의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기술력과 디자인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음 - 이번 UAM 시트 개발의 성공 배경에는 20여 년간 축적된 프리미엄 차량 시트 개발 노하우와 과감한 R&D 투자가 존재함. 현대트랜시스는 자율주행 및 UAM 시대에 시트가 차량 선택의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 관련 R&D 인력을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원하는 등 연구개발에 집중해 일반 차량 시트 개발 기간의 두 배가 넘는 5년을 투자하여 첫 모델을 완성함 - 현대트랜시스는 현대차그룹의 UAM 법인인 슈퍼널과 시트 공급 협력을 계획하며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새로운 먹거리 확보에 나섬. 또한, 시트 부문 매출이 5년 만에 두 배로 성장하고 미국 전기차 기업 리비안과 루시드 등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내연기관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시트 시장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게 만들
<p>대학교</p>	<p>- (해당 없음)</p>
<p>해외</p>	<p>- (해당 없음)</p>
<p>기타</p>	<p>- (해당 없음)</p>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우주 제조(ISM) 및 자원 채굴(ISRU), 6조원 규모의 우주 경제 선도 (2025.07.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 공간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우주 제조(ISM)'와 현지 자원을 채굴해 활용하는 '우주 자원 채굴(ISRU)' 기술이 우주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부상함. 이 기술들은 지구로부터의 보급 의존도를 낮춰 우주 개발의 경제적, 산업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으며, 연간 6조 원대 시장으로 급성장하며 새로운 우주 경제를 열고 있음 - 레드와이어, 바르다 스페이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바이오 프린팅, 신약 개발 등을 성공시키며 ISM의 상업적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음. 또한 아스트로포지, 아이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은 소행성 및 달 자원 채굴을 현실화하며 우주를 거대한 자원 창고이자 스마트팩토리로 변모시키고 있음 -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우주항공청이 '저궤도 우주공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질자원연구원이 국제 공동 연구에 착수하는 등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있음. KAI, LIG넥스원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참여도 활발해지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와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빠른 추격이 기대되는 상황임.
	<p>☐ 누리호 개발자, '우주 택배' 위한 민간 궤도 수송선 개발 도전 (2025.07.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출신들이 설립한 스타트업 '인터그래비티테크놀로지스'가 국내 최초로 민간 '궤도 수송선(OTV)' 개발에 나서며 뉴스페이스 시대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음. 이들은 위성 등을 원하는 궤도에 실어 나르는 '우주 택배' 서비스를 목표로, 우주에서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함 - 인터그래비티는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경제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음. 독성이 없고 운용 비용이 저렴한 무독성 추진제를 사용하고, 3D 프린팅과 니켈 합금 분말 적층 방식 등 혁신 기술을 적용해 '싸고 거칠지만 믿을 수 있는' 궤도 수송선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 전략임 - 2027년 1분기, 스페이스X 로켓에 50kg급 궤도 수송선 'iGRVT-50'을 실어 우주에서 첫 기술 실증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임. 이 실증 성공을 발판으로 본격적인 고객 유치에 나서고, 향후 지구 귀환 캡슐 회수, 우주 제조물 지상 반송 등 상업용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p>□ 대전 KAIST 우주인재양성센터, 93억 증액으로 사업 확장 가속화 (2025.07.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우주산업클러스터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건립 사업이 추경을 통해 9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됨. 이로써 KAIST 내에 구축되는 센터의 총사업비는 440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우주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이 더욱 튼튼해짐 - 이번 예산 증액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공간 수요와 물가 상승에 따른 장비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짐. 이에 따라 센터의 공간 규모는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장된 2378평으로 늘어나 개인 및 공동 연구실, 회의실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됨 - 황정아 의원은 이번 증액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예산 확보를 통해 대전이 세계를 선도하는 우주 인재의 핵심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의 우주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